

# 한국출판의 언론적 기능과 시대적 역할

## 권위주의 체제하(1972~1987)의 사회과학 출판을 중심으로

조상호

나남출판 대표

### 지성의 '게이트키퍼'로서 한국출판 박사학위 논문 써낸 조상호 사장



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더 뿌듯하다.

조사장은 이 논문에서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한국출판이 수행한 언론적 기능을 당시 출판계의 인적 구성과 출판사의 활동, 출판물들을 통해 역사적, 객관적으로 논증한다. 당사자들을 찾아 일일이 인터뷰를 하는 과정이 힘들었다는데, 이를 통해 1970~80년대의 출판이 수행한 도도한 사회적 역할은 이미 전대의 출판사들이 키워준 문화적 가능성 덕분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 출판은 우리 사회의 문화와 학술, 지성의 게이트키퍼(gatekeeper)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냈으며, 그 구성원 역시 당대의 지성을 대표할 만한 비판적 지식인 집단이라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출판인들이 보다 당당하게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그에 걸맞은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조사장은 이를 위해 우리 출판 인력의 고급화와 전문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 박남정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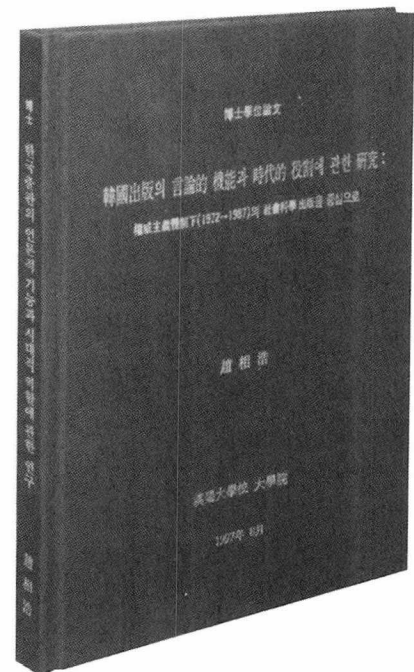
한국 출판과 출판인의 위상과 역할은 조상호(나남출판사) 사장의 오랜 관심거리다. 최근 국내 출판인으로는 처음으로 출판학 박사학위를 받은 조사장의 논문(한양대 신문방송대학원)은 이러한 관심의 결과물.

출판사 일을 병행해야 하는 주경야독 끝에 7년만에 논문을 완성.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냈다는 사실이 흥가분하고 기쁘지만 우리 출판이 지닌 '당당한 위상'을 역사적, 객

유신체제에서 5공화국에 이르는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한국 출판은 정치·사회적 상황에 대한 감시 역할을 담당하고 비판적 담론을 형성하는 언론적 기능을 수행했다. 해직기자·해직교수·제적학생이라는 비판적 지

식인 집단이 출판계로 대량 유입되었고, 이들은 기존의 출판물이 다루지 않았던 정치적, 사회적, 이념적 문제를 다룬 책을 펴냈다. 출판계에 일어난 이러한 인적·질적 구조변동은 한국 출판의 뉴저널리즘적 기능을 강

유신체제에서 제5공화국에 이르는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한국출판은 정치·사회적 상황에 대한 감시 역할을 담당하고 비판적 담론을 형성하는 언론 기능을 수행했다. 해직기자·해직교수·제적학생 등 비판적 지식인이 출판계로 유입되면서 인적·질적 구조변동이 일어나고 한국출판의 뉴저널리즘의 기능이 강화됐다.



화했고 이는 이후에 전개된 민주화 운동의 문화적 추동력으로 작용했다.

#### 뉴저널리즘으로서의 한국 출판

한국에서 출판의 언론적 기능이 중요한 현상으로 등장한 것은 '개발독재'라고 표현되는 이중적 과정, 즉 자본주의 산업화와 군부 권위주의의 강화가 진행되었던 1970년대 부터라고 할 수 있다. 정부의 언론통제에 반발, 해직된 언론인들이 출판계로 대거 유입되면서 출판계의 구조변동을 초래했다.

해직언론인들은 직접 출판사를 경영하거나 개인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번역이나 저술, 기획활동에 참여하면서 학계의 비판적 지식인들과 연계, 기존의 출판이 다루지 않았던 사회적·이념적·국제적 문제에 관한 책들을 출판하기 시작했다.

문학과지성사·청람문화사·전예원·과학과인간사·정우사·한길사·아침·두레·백제출판사 등은 해직언론인들이 직접 경영했던 출판사들이며, '종각번역실'은 일종의 언론출판 채널로 기능했다. 송건호·이영희 같은 비판적 저널리스트들은 언론이 잃어버린 본연의 기능을 출판으로 대체해 더욱 활발한 활동을 벌였는데, 특히 이영희의 《전환시대의 논리》는 1970년대 언론출판운동의 한 기점으로 자리하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는 책이다.

'계간지 시대'를 선도한 《창작과비평》이나 《문학과지성》은 그동안 학술출판에서 제한적이고 주변적인 역할에 머물러 있던 출판인의 지위와 역할을, 지식인들의 성과물을 기획해 출판상품화하는 중심적 역할을 맡는, 동등한 혹은 주도적인 역할로 제고시키는데 결정적 계기가 됐다. 이러한 지식인 잡지의 성공 배경에는 《사상계》《아세아》등으로 이어지는 지식인 잡지의 전통뿐 아니라, 일조각처럼 새로운 출판인들의 모험과 시도를 떠받쳐준 기존 출판계의 '양식'과 '후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유신체제하의 출판계는 일종의 '반체제 공동체'였다. 이들 새로운 출판인들이 만들어낸 책은 대학생들 비롯한 일반 독자들이 민주주의와 사회정의에 대한 열망을 의식화하는 계기와 장기적 효과를 제공한다.

#### 사회운동의 이념을 주도한 출판운동

광주민주항쟁, 전두환 정권의 억압성, 반체제 변혁운동의 급진화 등으로 요약되는 1980년대의 정치·사회적 환경은 이 시기를 사회과학 출판의 전성기이자 금서의 양산기로 만들었다.

이 시기 출판운동의 주도적 세력은 반체제운동을 하다 체제된 학생들, 청사·풀빛·나남·형성사·광민사·학민사·한마당·한울·산하·사계절·자작나무 등이 대표적

# 책의 정글 '아마존' 탐험기

자유자재의 검색으로 정보찾기 수월

김영신

동아일보 <뉴스플러스> 기자

인 경우다. 광주항쟁 이후 반미운동과 사회주의적 변혁운동을 포함한 당시 사회운동의 이념을 전파하는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 이들에 의해 좌파출판이 활성화되었다.

정권의 출판물에 대한 억압이 가속화함에 따라 수많은 서적들이 금서로 지정되었는데, 이 시기의 금서는 그 존재 자체가 정권의 억압성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오히려 효과적인 언론적 기능을 수행했다. 황석영의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장길산> 등은 대표적인 경우로, 이는 문학작품이자 역사적 진실을 공론화하는 언론적 기능을 수행했다.

1975년과 1980년 해직된 기자들의 통합 조직인 '민주언론운동협의회'의 기관지로 창간된 월간지 <말>은, 출판을 통한 재야언론운동의 매개였다.

출판계에 유입된 제적학생들은 출판물을 통해 사회운동의 이념을 주도하는 실천적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학술운동과의 연계를 통해 학술성과 전문성을 제고시켜,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일반인들에게 비판적 의식을 심어주고 권위주의 통치 종식을 공론화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이로써 출판은 1987년 6월 민주화항쟁을 이끌어내는 언론적 기능을 선도적으로 수행해냈다.

## 민주화시대의 출판의 언론적 기능

출판의 언론적 기능은 언론이 권력 혹은 자본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특수한 상황에 만 국한되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책의 역사를 통해 볼 때 출판은 가장 전통적인 형태의 언론이기 때문이다. 민주화시대, 다매체 시대에 있어서 출판의 언론적 기능은 사회적으로 분화된 하나의 기능으로 그 의미가 변화되고 있다.

출판이 독자적이고 전문적인 영역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질적으로 가장 뛰어난 책을 만들 수 있는 문화적 토대와 그러한 책들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상업적 토대를 동시에 갖추어야 한다. 한국 출판에 있어서 그 가능성은 전문적인 학술출판에서 찾을 수 있다. ❖

세계에서 가장 큰 서점. 250만권의 책을 보유하고 있고,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쉬지 않는 가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원하는 책을 찾아볼 수 있고, 앉은 자리에서 구입이 가능하며, 게다가 30-40%씩 책값을 할인까지 해준다면? 바로 인터넷 서점, <아마존>(http://www.amazon.com)을 두고 하는 얘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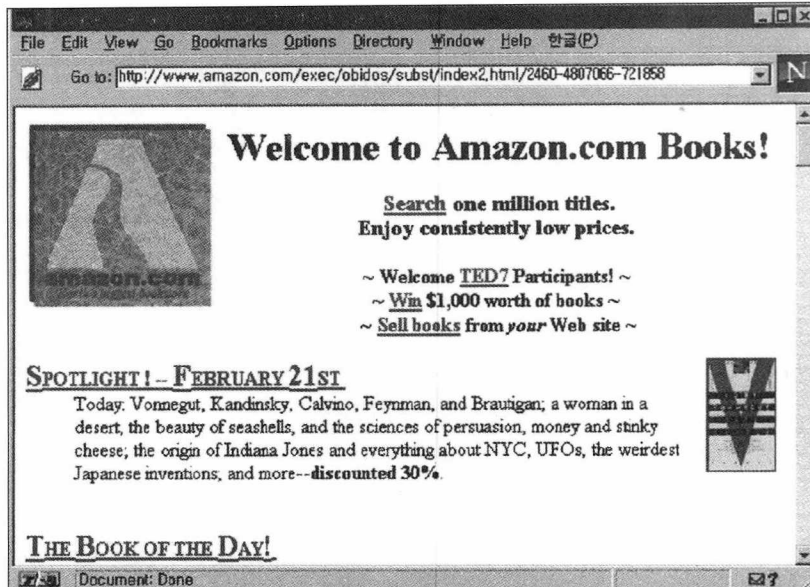
조심스레 인터넷의 바다에 발을 담글 무렵 만나게 된 사이트 중 하나인 <아마존>은 나에게 교보나 영풍문고 못지 않은 재미있는 놀이터처럼 여겨졌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서점만큼 시간보내기 좋은 장소가 또 어디 있겠는가. 비록 책표지를 쓰다듬고 책갈피를 넘기며 향긋한 종이냄새를 맡을 수는 없지만, 가상서점 <아마존>은 그에 못지 않은 기쁨을 선사해주는 곳이다.

나의 <아마존> 탐방은 대개 순서가 정해져 있게 마련이다. 우선 홈페이지가 나오면 매일매일 바뀌는 '오늘의 신간' (New Our Shelves Today)을 본다. 보통은 책에 관한 간략한 소개나 저자, 혹은 연관된 주제의 사이트를 찾아갈 수 있도록 링크(link)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으흠... 오늘은 칼 세이건의 <접촉>(Contact)이 올라와 있군. 세이건의 다른 책들은 뭐가 있는지 찾아볼까"하며 '구경'을 계속하는 식이다.

그 다음은 '뉴스에 소개된 것들' (Title in the News) 차례다. 나는 주간지에서 출판란을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뉴욕타임스> <뉴욕커> <엔터테인먼트 위클리> <사이언티픽 아메리카> 등 미국의 권위 있는 매체들에 무슨 책들이 소개됐으며, 어떤 평을 받았는지 살펴보는 것은 해외 신간소식이나 관련된 기사거리를 찾는 '직업적인' 부분에도 꼭 도움이 될 때가 많다. 베스트셀러 코너나 주요 출판·문학상 수상자들의 목록을 살펴보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에서다.

물론 <아마존> 외에도 다른 인터넷 책방은 많다. 하지만 책에 대한 상세하고도 친절한 서평과 해설, 여타 풍부한 정보들이 체계적으로 정리,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아마존>은 도저히 다른 홈페이지들이 따라올 수 없는 장점을 가졌다.

실제로 나는 가수 바브라 스트라이샌드의



뛰어난 검색기능으로 만족을 주는 <아마존> 홈페이지.

조심스레 인터넷의 바다에 발을 담글 무렵 만나게 된 <아마존>은 나에게 어느 서점 못지않은 재미있는 놀이터였다. 나의 <아마존> 탐방은 매일 바뀌는 '오늘의 신간' '뉴스에 소개된 것들' 같은 소식을 접하며 구경을 계속하는 식이다.

전기 출판과 타이거 우즈 골프책 출간붐 등에 관한 아이디어나 한국의 '엠펜소설'에 관한 글을 쓰면서 미국의 같은 장르인 'Sudden Fiction'에 관한 정보를 <아마존>에서 얻어 지면에 반영한 경험이 있다.

하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아마존>에 가장 만족스러워하는 점은 뛰어난 검색(search) 능력이다. <아마존>은 저자와 제목, 주제별 검색 기능 외에도 키워드나 ISBN으로 원하는 책을 찾아볼 수 있고, 위 모든 요소들을 합쳐 검색하는 'Advanced Query' 기능도 있다.

나는 최근 오페라에 재미를 느껴 열심히

음반을 듣고 관련된 책을 찾아 읽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국내에는 이 분야에 관련된 책이 별로 없고 외국 책도 드물게 수입되는 편인데, <아마존>은 이런 아쉬움을 많은 부분 채워준다.

주제어 검색기능을 통해 오페라에 관련된 여러 권의 책을 훑어보고 베토벤의 오페라 <피델리오>에 관한 책과 작곡가 푸치니의 전기를 30% 할인된 가격에 온라인으로 주문했다. 배달요금까지 합하면 싼 것도 아니지만, 국내에서 구하기 힘든 책을 받아 들었을 때의 만족감이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그래서 필자는 책에 관심이 많고 인터넷을 조금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지금 바로 <아마존> 탐험에 나서길 권하고 싶다. ❖